



한기총, 부활절 연합예배 광림교회에서 갖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1일(금) 오전 7시 팔레스호텔에서 제 27-2차 임원회를 열고 3

월 27일 주일 오후 5시 2016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광림교회에서 드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

는 배진구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최성규

목사(증경대표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합니다. 1.14일,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것을 말합니다. 1.15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가리키는데 1.16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심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신앙 (고전 15:3~4절)

다. 또한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생히 알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이 묻쳐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변화된 삶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저스타임즈를 통해 인터넷방송 JTNTV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진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쁨준비를 다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역사상 예수님 부활사건처럼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일이 없습니다. 갯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인 부활능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장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담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도 오직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는 사실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입니다. 부활하신 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박 대통령, 30일부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청와대 "주요국 정상과 별도 회동"… 4월 2~5일 멕시코도 공식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0일~4월 2일 핵안보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어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5일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청와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 및 4개 국제기구(UN, IAEA, 인터폴, EU) 대표들이 참석,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기간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 회동을 가질 계획이며, 해당국들과의 협력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서울(2012년 제2차 정상회의), 헤이그(2014년 제3차 정상회의)를 거쳐 다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분야 협력증진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2차 IAEA 핵안보국제회의'(각료급) 의장직 수행 등을 통해 그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4월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4월 4일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우리 기업의 에너지·교통·인프라 건설 참여, ICT·과학기술·보건·치안·교육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니에토 대통령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의 충실하고 실효적인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와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문화행사 등에 참석해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이번 멕시코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멕시코의 협조 확보는 물론,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미주 대륙의 생산기지'로 불리는 멕시코를 교두보로 해 미주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진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기표 기자

한동위, 동성에 제17회 쿼어문화축제 서울시에 사용불허 요청

한국교회동성애대책회(이하 한동위)는 제17회 쿼어문화축제 측이 지난 10일, 서울시에 오는 6월 8일부터 11일 까지 4일 간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청 앞으로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청 면담을 신청했다.

제17회 쿼어문화축제 측은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제16회 축제와 퍼레이드를 가진데 이어 금년 6월 쿼어축제와 퍼레이드도 서울광장에서 갖기 위해 서울광장 사

용을 신청했다.

제17회 쿼어문화축제 측은 오는 6월 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쿼어축제 개막식을 갖고,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틀간 에 걸쳐 동성애에 관한 예술작가 사진전을 연다. 또 6월 1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쿼어축제 본 행사와 거리 퍼레이드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한동위는 박원순 서울시청 앞으로 긴급 공문을 발송해 지난해 제16회 쿼어문화축제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동위

는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청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상세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하도록 부탁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 축하 및 교회설립 22주년 기념 감사예배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2016년 표어 :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창49:24)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 오전 9시30분
2부 : 오전 11시
주일저녁예배 주일오후 7시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철야기도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철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30분

지향하는 4대 목표

예배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선교활동의 모범이 되는 교회
부흥성장의 모범이 되는 교회
축복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신앙생활 수칙

절대 하나님 중심
절대 말씀 중심
절대 교회 중심
위계 질서 존중
나눔 실천의 생활화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 CBS TV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전화 : 02) 934-1232

<논평>

정치권의 막말 파문, 남의 일만은 아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의 국회의원인 지인과의 통화에서 당대표를 겨냥해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라고 한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나라 국회의원의 품격과 언어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실감감을 넘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 사람이 한 여성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반응이 신통치 않자 듣기 거북한 비속어를 남발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의 독설과 막말은 어제오늘의 일도, 여야 가릴 일도 아니지만 상대방을 향해 도를 넘는 악담과 욕설, 비방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지 기성세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의 고질병을 그대로 방조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코앞에 다가온 총선 정국으로 예민해진 상황이라 해도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품격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비방과 네거티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승자 독식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이런 저질 국회의원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국회 윤리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징계를 한다지만 기껏해야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이다 보니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총선에서 포로 심판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상대방에게 독설을 퍼붓는 정치인, 안하무인격으로 욕설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저질 국회의원들을 가려내는 일은 공천심사위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설과 막말이 우리 정치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교회도 안사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전도에도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말을 가려함으로써 성직자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마15:11)고 말씀하셨다. 비난과 욕설 등은 언어나 기교보다 배설에 가깝다.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성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인간은 귀 때문이 아니라 입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시한번 명심하게 되기를 바란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한국교회연합

JTNTV / 지저스타임즈 10-2차 이사회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론사, 세계선교를 위한 헌신을 다짐

JTNTV 지저스타임즈(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지난 26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 소재 하나님 이디자인하신교회(담임 김창룡 목사 시무)에서 2016년 2차 정기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문서선교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인천지사장)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상임이사 박동호 목사(한기보 전 상임회장)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요6:65~68)하고 오직예수선교단(신정운 목사, 이순화 사모), 영광고회 헬시바전양선교단의 찬양과 하나님디자인하신교회 김성찬 학생, 헬시바 학생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연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렸다.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는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꾸미오리기독무용단의 찬양과 천안지사 유기형 기자가 봉헌기도를,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가 인사의 말씀을,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이사장 조강수 목사를 대신하여 인사를 드린 후 언론사의 운영을 위한 보고와 전국 29개 지사와 MOU체결한 미국 크리스천헤럴드신문과 TV방송 라디오방송을 소개하고 양사는 물론 태국, 호주, 필리핀 등 이미 MOU



를 체결하고 협력하고 있는 각 언론사와의 돈독한 유대관계는 물론 콘텐츠를 위하여 노력하자며 입을 모았다. 아울러 실적이 미비한 지사 및 기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장 소진우 목사는 김창룡 목사를 본사 상임이사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이하-언부협) 상임회장에, 박미영 목사를 본사 운영이사 및 언부협 실무회장에 각각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가 본사 광고를 상임이사 김창룡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했다.

특별기도에는 1) 본사 및 전국지사 활성화를 위해 사장 소진우 목사, 2) 문서선교를 통한 세계복음전파를 위해 칼럼리스트 장승현 목사, 3) 전국지사 및 해외지사, 재후사를 위해 운영이사 김선호 목사, 국가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교육칼럼

청년이여,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던 것이 언제인가? 누구를 용서했었는가?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용서를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용서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강조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해 왔음에도 용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얼마전 영성 수련회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내가 용서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000,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짝이 되어 주셨던 멘토 목사님께서 “000는요? 용서하셨나요?”하고 물어 오시는데 머리는 멍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다. 아! 내가 그분을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 버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과의 모든 기억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꽂꽂고 가두어 잠가 두었



김영수 목사 CRM Korea 청년 디렉터

던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지나가 버리듯이 그런 순간과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픈 기억의 파편들이 마음을 찌르며 아프게 할 때가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한다. ‘용서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져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네 인생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다.

그 사람을, 그 순간을 용서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아픈 추억과 상처를 마음 깊숙이 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한다. 나의 사고가 닫히게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순간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하신 용서를 따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잠시 눈을 감고 혼자 고백해 보자. “000,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CHTV1888 제공

2016년 세계여성기도일 예배

주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배문 작성국 쿠바, 2016 세계여성기도일 예배 성대하게 열려



올해로 129주년을 맞는 세계여성기도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오전 10시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에서 열렸다. 2016 세계여성기도일의 주제는 ‘어린이를 영접하

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였다. 세계여성기도일은 매년 3월 한 달 한시에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기도문은 국제위원회에서 결정

한 제목에 따라 각 나라 교회 여성들이 작성하게 된다. 예배에서 드려지는 한글은 기도문 작성국과 세계의 불우인들과 결사아동들, 노약자와 장애인, 선교사들을 위해 쓰인다. 올해의 예배문은 쿠바 교회 여성들이 작성했으며, 올해의 주제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로 정했다. 한국도 이 행사에 세 번의 기도문을 낸 바 있다.

경배와 찬양에 이어 세계여성기도일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특별히 쿠바 현지의상으로 등단한 6명이 마디극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설교를 맡은 고태형 담임목사는 “예수님이 보시기엔 작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없으시다”고 말했다.

이어 Hessed Global 예술선교회는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청중들에게 큰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중보 기도순서로 *강정희 장로(우리 가정들의 영성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최순자(미국과 이민교회를 위하여), *최미란 사모(한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북한과 탈북자들을 위하여), *이린애 장로(쿠바를 위하여) 청중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수자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2016 세계여성기도일 순서를 모두 마쳤다. 행사 후에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부활 예수다시 사셨네~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2층)
기도원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도실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7)

담임목사 장승현
REV. Jang Sung Hyun

표어 :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교회

성가대 : 윤철호 집사

· 지도 : 장성진 선생

· 반주 : 강다연 자매

예/배/시/간/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수요예배	수,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9시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중·고등부	토요일 오전 9시	
성가대/청년회	주일오후 2: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2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곡리 55-6)
TEL 교회 : (041)356-0644
E-mail:sunghyun732@hanmail.net 홈페이지 http://pyeong-an.com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치병 집회중 선포 기도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교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탈퇴공고

본 교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국제 교단과 경기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3일

은혜교회(구리)

장로 : 송태환

권사 : 이명희 염경남

외 교우일동

한기보, 3.1절 기념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 기독교에 영적 쓰나미가 불고 있음을 통탄”

지난 2일(화)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에서 사)한국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이하-한기보,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47개 교단과 단체 회원들이 모인가운데 “3.1절 97주년 기념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대표회장 지왕철牧사는 취임사에 앞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며, 10년 전 대표회장직을 한번만 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심경이라고 고백하며, 그 당시에도 대표회장직에 나을 때 여러 음해가 있었음을 회상하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

에 대해 똑같은 심경이며 개탄스럽고 슬프다고 고백했다.

자신은 명예나 위상을 위해 대표회장직에 출마한 것이 절대 아니며, 대표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WCC, WEA와 이슬람교와 같은 영적 쓰나미가 닥쳐와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데 누가 영적 쓰나미를 막을 것인가? WCC와 WEA는 근본적 원인은 성경과 철학을 혼합한 헬레니즘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돌연변이라고 했다. 이에 대응할 것은 신학과 교리도 중요하나 시급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 즉 본질

을 찾아 제시함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단을 연구하는 이들이 참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사역보다는 목회자의 기타 문제점을 가지고 허튼짓을 하려는 사이비 이단 감별사들에 대해 강력히 맞설 것을 주장하였다. 잘못된 이단 감별사와 맞서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사명을 위해 뭉쳐야하며, 한기보가 작은 교단들의 연합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견고하고 단단한 시멘트와 같이 하나로 뭉쳐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일을 해나갈 것을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날 설교를 맡은 예장(개혁) 총회장 조 은 목사는 요8:31-32 말씀을 가지고 “자유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의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이어 2부 이.취임식에서 이범성 목사가 이임사를 전하고, 한교연 성경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축사였다.

이날 1부 순서는 김 암 목사(예장 보수합동 증경 총회장) 대표기도, 김보희 목사(예장 사명가 총회 총무)가 성경봉독, 조 은 목사(예장 개혁총회장)가 설교, “국가 안정과 통일, 한국교회와 한기보, 3.1절”을 위하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 광영민 목사(예장 예능 총회장)가 헌금 기도를,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예장 예음 총회장)가 광고를, 이의근 목사(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가 “만세삼창”을,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에는 이임하는 직전 대표회장과 취임하는 신임 대표회장의 공로패와 취임패 전달식을 갖고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선임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하달했다. 이어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예장예음 총회장)의 광고 후 전임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광영민 기자

성경말씀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가 성공한다

광림교회 교회학교 봄학기 맞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강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를 비롯해 역사 속의 많은 위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매년 봄학기가 시작되면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성인들이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서 성경을 배우며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있다면, 어린 자녀들은 교회학교에서 마련한 어린이 트리니티 프로그램과 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의 신앙교육은 많은 위인들이처럼 성공하는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교회학교에서 마련한 봄학기 교

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예그리나 트리니티]
대상 : 4세~7세 어린이 / 일정 : 3월 5일~2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 : 웨슬리관 4층 영어예배부실 / 프로그램 : 노래와 율동, 성경 배우기, 대그룹활동, 신체활동, 만들기 등

[사이닝 트리니티]
대상 : 아동부 각 부서(유년, 초등, 소년) / 일정 : 3월 중(4주 예정) / 장소 : 각 부서실
주제 : 성령의 열매 / 프로그램 : 강의, 열매 찾기 게임, 야외 활동

[토요영어학교 TBS]
대상 : 초등학생 1학년~6학년 / 일정 : 3월 12일~5월 14일(10주) / 장소 : 교육국 2층 (유년부실) / 프로그램 : 영어로 하는 요리교실, 보물찾기, 만

들기, 야외운동회 등

[예수제자학교]
대상 : 중고등부 임원단 및 리더그룹 / 일정 : 3월 12일~4월 2일 / 장소 : 교육국 3층 분반실 / 프로그램 : 성령의 9가지 열매, 리더 교육, 청소년 온타임 목상법 등

[예배자 학교 - Art of Worship]
대상 : 청소년 예배팀, 성가대, 관심 있는 학생 / 일정 : 3월 5일~26일 / 장소 : 웨슬리관 3층 애즈베리 홀 / 프로그램 :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반응, 예배자의 (삶의)승리

[솔로몬아기학교]
대상 : 생후 15개월~3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일정 : 4월 9일~6월 4일 / 장소 : 광림사회봉사관 3층 영어부실 / 프로그램 : 자유놀이, 노래와 율동, 신체활동, 음악교실, 미술활동, 야외활동, 소풍 등 문의 : 교육국 02-2056-5373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랑의 쌀 전달식’으로 제4회기 업무 시작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계총, 대표회장:고시영 목사)는 제4차 정기총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정기총회시 들어온 축하 쌀화환(약 600kg)을(사)해뜨는마을(신생교회 <김원일 목사>-발사랑공동체, 용산구 동자동43-42 tel: 742-2970)에 “사랑의 쌀 전달식”전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음식 그리고 양말을 나누는 봉사를 하면서 제4회기를 시작하였다.

세계총은 2016년 신년하례예배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새해를 시작하였듯이 제4회기 첫 시작의 발점음도 노숙자 및 어르신들을 섬기며 시작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약 300여명의 이웃들이 1시간 전부터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오전11시부터 시작된 예배는 1시간가량 진행되면서 세기총부회장 이강섭 장로가 기도로, 세기총 여성위원장 하종심 권사가 봉헌기도로, 세기총 증경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및 상임회장 이병용 목사가 격려사로,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가 성경봉독으로, 세기총 소개 및 인사로 신광수 목사가 예배를 섬겼고 설교에서 세기총 직전대표회장인 김요셉 목사는 “나도 여러분들처럼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선배”라고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마음을 잘 이해한다”라고 할 때에는 참여한 모든 분들이 박수와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예배를 마친 후 모두 함께 음식



을 배식하면서 봉사를 마친 후에는 직전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도 교인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낱자를 정하였고, 세기총 여성위원회에서도 낱자를 정하고 봉사하기로 하였으며, 세기총에서도 11월 마지막주간에 하기로

하였다.

세기총이 나눔과 배려를 통하여 사회속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출발된 단체이기에 이번 봉사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장애인 학교

학생들 미주

공연 계획

서울 잠원동 늘푸른교회 시무장로(담임 박규용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최공열 장로가 본사를 방문하고 장애인사역을 함께하기로 했다. 최 장로는 오는 9월에 있을 장애인 예술단의 미주공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차 열에이를 방문했다.

1987년부터 창립된 장애인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최 장로는 남은 생을 장애인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9월 LA, 뉴욕, 시카고 3곳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 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운영이사 최공열 장로(서울 잠원동 늘푸른교회)

며, 30여 명의 단원이 참여한다. 찬양과 율동, 사물놀이 합창과 난타 등의 공연이 준비된다.

최 장로는 현재 이 예술학교에서는 자폐아동들이 예술을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다고 소개하며 미주공연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희망을 피력했다.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학교에는 자폐증 환자가 5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항상 부모가 보살피며 학교에서는 신앙심 깊은

교사들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장로는 또,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신앙지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학사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최공열 장로는 “행사는 9월1일부터 약 2주간을 계획하고 있다. 첫 해외 공연이다. 해외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신앙과 용기를 주게 되기 바라는 뜻에서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HTV1888 대담: 김창호 기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보수 총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0-168
H.P 010-5325-3893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김종인 대표와 면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CCMM 빌딩 1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윤석 의원이 배석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대표님께서 건강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대한다”며 “경제 살리기에도 함께 힘을 써 주시

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김종인 대표는 “건전한 야당이 없으면 여당도 잘 될 수 없다”며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고, 외교 정책과 안보에 대해서 대화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애 입법 반대와 이슬람 대책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 교계 입장을 전달했다.

총신대 사회교육대학 실천목회연구과정 개설

복음의 핵심 및 성서해석학 등 알기쉽게 전수, 17일 개강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에 신학생, 목회자들을 위한 실천목회연구과정이 개설, 17일(목)개강했다. 1년 과정으로 개설된 목회연구과정은 이흥선 목사가 책임교수를 맡아 운영한다. 신학생 목회자들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강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이흥선 목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성경해석학은 이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김대광 교수가 맡아 강의한다. 이 밖에도 특강교수로 실천목회 경력이 풍부한 목사님들을 초청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로 단시일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핵심들을

가르친다.

이번 강의를 맡은 이흥선 목사는 현재 케이블 기독교채널인 굿터비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30분(재방 토요일 새벽4시)에 인گیری 방영되고 있어 시청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 강의에서는 방송에서 못다 한 많은

복음의 핵심들을 심도 있게 강의를 해 나가고 있다.



성서해석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대광 교수는 여러 신학교에서 성서해석학 강의를 해왔고, 기독교방송에서 여러 해 강의를 해왔다.

3.1절 제97주년 기념 연합예배

WCC, WEA에 속지 말고 동성에 반대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가입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3.1절 제97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2016년 2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190 (연지동)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세계연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사)세계

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 예장합동예장총회 총무 정 현 목사가 성경봉독(행1장 4-8)하고, 개혁중앙단의 찬양과 예장정통총회 김병섭 목사가 색소폰 연주를, 사)세계연총재 김권현 목사는 “독립정신과 그리스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우리나라는 일제36년의 핍박과 설움을 당하였고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독립정신을 기리며 민족지도자 33인의 대표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우리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와 정신으로 살았고 오직 독립만을 위하여 희생하였으며 후손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였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서들은 성경대로 살고 나라를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 받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국권이 튼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국가와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예장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사)한개협 이사 이영훈 목사, “일본회개 추수와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하여”예장기총총회장 김성환 목사 등이 각각 기도하였다. 또한 예장회개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사)세계연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만세삼창을 하고, 사)한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인사말씀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WCC나 WEA에 속지 말고 동성을 반대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애국정신을 크리스천들은 가지고 살아가자고 했다.

아울러 사)한개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3.1절 연합기념예배를 성대하게 마쳤다. 금번 기념행사에서는 “3·1절 만세 운동과 기독교”에 대하여 재조명하여 보고 삼일절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역사적 배경, 삼일절 만세운동의 발단과 삼일 만세운동의 기독교 교회의 전개 과정과 역할, 그리고 교회의 피해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삼일 만세운동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1년 5회 교회 문 닫고, 지역 어려운 교회 돕기

1천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지역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주일 날 본 교회의 문을 닫고 전 교인들이 지역 어려운 교회를 찾아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인천의 B교회는 3월 13일 주일부터 교회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1천여 명의 교인들은 돌아오는 당회장의 방침에 따라 주일 다른 교회로 출석하게 됐다.

어찌된 사연인지 알아본 결과 지역 내 작은교회 돕기 위해...매주 300명 다른 교회로 출석한다. B교회는 올해부터 10주에 한 번씩, 1년에 다섯 차례 교회 문을 닫는다고 했다. 그래서 3월 13일 주일부터 교회가 문을 닫는 첫 번째 주일이다.

교회 측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역의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은 교회 문을 닫고서라도, 교인들을 지역의 작은교회들을 찾아 가게 한다고 했다. 게다가 교역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B목사는 한 장애인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 다.

이 교회 부교역자로 있다가 몇 달 전 분립 개척한 김 목사는

는 기자와의 통화(뉴스미션)에서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이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드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B목사는 오래 전부터 교인들을 지역의 작은교회들로 보내는 운동을 진행해 왔다. 교회가 커지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출석 교인이 1천 명을 넘어 서면서 600여 명을 다른 교회로 보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교회 문을 닫는 ‘2016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다른 교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며 “3개월 기간을 주고 적응이 잘 되면 정착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피드백을 받는다”며 “혹여나 교회 자랑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최대한 목사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교회의 시도는 분명 모험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정착할 수 있을지, 지역교회들과 얼마만큼 잘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는 시간을

지역 내 작은교회 돕기 위해...

매주 300명 다른 교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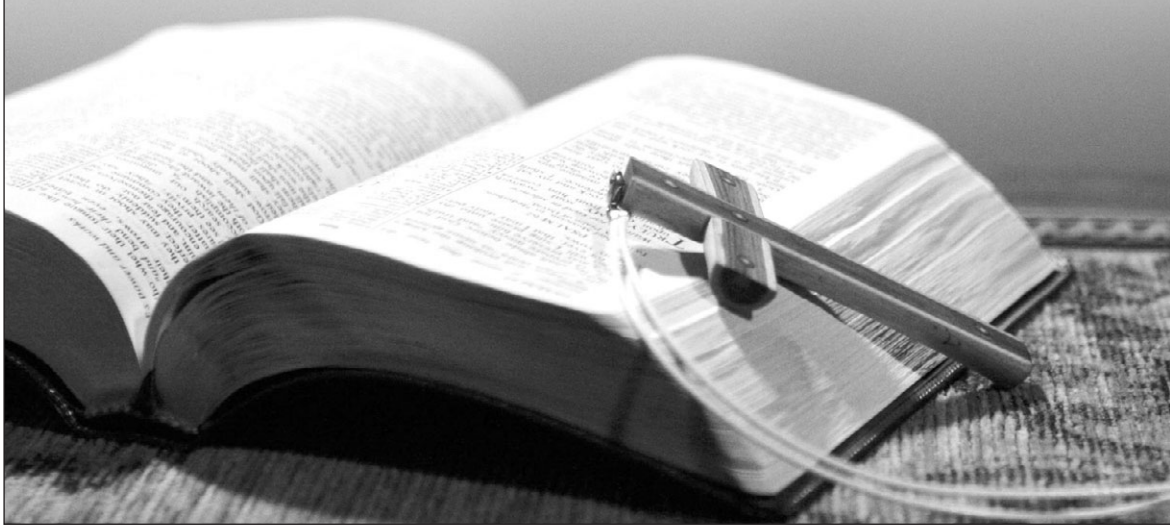
것이다. 김 목사의 교회를 포함해 분립 개척한 교회들도 4곳 정도 된다. 현재 300여 명의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지역 내 10여 교회로 나뉘어져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B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뿐 아니라 타 교단 교회들도 있다. B목사는 십일조 등 헌금도 그 교회에서 하도록 권유한다.

정착 못하고 돌아오기도...“지역교회와 충분히 대화”

하지만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의도대로 잘 정착하는 것만은 아니다. 김 목사는

갖고 지켜볼 일이다. 교회 재정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김 목사는 “B교회가 하는 일이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교인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한 사람이라도 정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오해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교회와 목회자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속 부할 -

http://www.dtu.ac.kr

2016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편입생 모집안내



총장 황원찬 박사

본교는 말씀과 삶을 통합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주역들을 모집합니다.



석사과정	목회학석사(M.Div.)	월요특성화반	월요일, 전일제 수업	3년	00명
		주간: 화수목, 야간: 월화목		3년	00명
	사회복지(M.A.)	사회복지전공, 복지상담전공		2년	00명
	상담심리학(M.A.)	상담심리치료전공		2년	00명
신학석사(Th.M.)		구역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2년	00명
박사과정	목회신학박사(D.Min.)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3년	0명
	철학박사(Ph.D.)	신학	구역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학	3년	0명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전공	3년	0명
		상담심리 치료	상담심리치료학 전공	3년	0명
편입생	석사	목회학, 신학		2, 3년	00명
연구과정		목회학석사(M.Div.ep.) 및 신학석사(Th. M.)과정			00명

※ 특성화 반은 주1일 수업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입시본부 031) 470-3327(010-2419-1407) http://www.dtu.ac.kr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15:12-20)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시간을 시작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죽은 자 사흘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사오며...”입니다. 이는 중대하면서도 기초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적 이단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하 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가 당하신 고 난, 또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부 정하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가 재림 주 예수이며 부인 한학자가 성령이라 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메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곧, 허무맹랑한 거짓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가 되신 것입니다.

A.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 니다.



황원찬 목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되었거늘...” 그렇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 습니다. 성도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 오. 참 신앙은 부활의 신앙뿐입니다. 성경지식이 부족한 것, 기도 실력이 부 족한 것,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만한 능력 이 있더라도 부활의 믿음, 확신이 없다 면 그 믿음은 실상 죽은 것입니다.

B.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

로 발견되리니...”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것도 헛것이며 복 음을 전하는 일은 거짓 전파이며 거짓 증인이라 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 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 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 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계 란이 부화되어 껍질이 깨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씨이 나고 있 이 쏙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C. 우리도 부활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 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 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 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 니다. 곧 사단은 에덴에서 인간을 타 락시키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령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피로 씻을 받았습 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영 생입니다. 곧 주 예수로 말미암아 천 국에 이르게 됩니다.

| 부활절 칼럼 |

연장(延長)이 아닌 영원(永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님의 사랑과 기쁨이 신문방송을 사랑 하시며 기도와 후원으로 문서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빌며 사장 소진우 목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버트 에팅거(Robert Ettinger)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인체냉동보존술 이 론을 최초로 세운 미국의 물리학자입 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참전 중에 부상 입은 다리를 절단할 상황에 처했다가 뼈 이식수술에 성공해서 회 복했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의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생명을 영원히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는 사람을 냉동 시켜서 보존했다가 해동시키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인체냉동보존에 관한 연구 로 발전해서 1962년에 [냉동인간]이라 는 책을 출간하며 학계에 신선한 충격 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에팅거는 이후 디트로이트에 ‘냉동 보존연구소’를 건립하고 고객을 유치 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냉 동시켰고,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가 술질 때 역시 모두 냉동보존 시켰 습니다. 또한 에팅거 자신도 2011년 사망하면서 먼 훗날 자신을 소생시킬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본사 사장
언론부흥사협회 연수원장

의술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냉동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도 냉동인간을 만드는 곳이 수 십 군데 있다고 하며 그 중 [알고 생 명 연장 재단]이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냉동인간들 또한 수백명이 넘 는다고 하는데 냉동인간은 현재 수십 여 개의 냉동전문화사의 지하에 사람 의 몸을 영하 196도로 급속냉각시키 고, 특수강으로 만든 관에 넣어서 다 시 영하 200도의 얼음창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의학이 발달되면 병을 고쳐서 이 세상에서 다 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 다.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다 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

이 있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년, 200년 후에 불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된 뒤,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이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절 대 아닙니다. 영혼을 다시 불어넣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냉동됐다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질 방법은 없는 것입 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생명연장의 꿈을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또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다른 곳에서 돌과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작 수명 연장이나 힘든 현실을 피하는 정도의 선에서 만족할 분들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으며 죽음을 깨뜨리시 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분이 여러분의 현재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영원 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 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소 망합니다.

국제에녹부흥사회/부흥신학원이 새롭게 출발

정기남 목사, 주찬양 목사는 제2대 총재와 이사장에 취임!

국제에녹부흥사회는 정기남 목사가 제 2대 총재로, 에녹부흥신학원은 주찬양 목 사 가 제2대 이사장에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12일(토) 오전 11시 인천 남구 송의동에 위치한 등불교회(곽영민 목사)에서 많은 동역자들의 축하를받으면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2대 총재로 취임한 정기남 목사는 언론 사 대표이사이며 선교목사로 교회를 섬 기고 있다. 정 총재는 지난 35년간 부흥 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한 경력과 이 외에 단체에서 대표회장과 총재와 부총재, 웨 신총회 총무를 거쳐 부총회장을 지냈으 며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주찬양 목 사는 늦게 목회자로 부름받아 열정적으 로 복음의 불꽃을 사르며 후학들을 가르 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이며, 에녹부흥신 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사장으로 선 출되어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에 찬양인도는 국제에녹 부흥사회 공동회장이자 찬양사역자 김선 우 목사(주사랑교회), 사회에 에녹부흥신 학원 교회음악 교수 김성기 교수가, 대표 기도에 에녹부흥신학원 이사 김정남 목 사(영안교회), 이날 특송은 부부찬양사역 자“오직예수찬양선교단”선정운 목사 이 순화 사모(오직예수교회), 꾸미오리 기독교



무용단 단장 김창숙 원장 외, 영광교회 험시바 찬양단 등이 은혜를 끼쳤다.

이어 지저스타임즈 이사장이며 언론부 흥사회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가 답전1:12-15절을 제목으로“충성된 일꾼”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다. 조강수 목 사는 축하와 함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 신 사명을 잘 감당해줄 것을 주문하고, 부흥사회와 신학교에 비전을 제시하였고, 봉헌기도는 부총재 함선교 목사(강남은혜위의은혜교회)가 하였다.

2부 취임식에서 직전 이사장 배정희 목 사(믿음교회)가 이임사를, 신임총재 정기 남 목사, 이사장 주찬양 목사가 각각 취임사를 했다. 곽영민 대표는 직전 이사장

배정희 목사에게 공로패를, 신임총재와 이사장에게 취임패와 축하 꽃다발을 안 겼다. 부흥사계의 원로인 부총재 이흥회 목사(축복받은교회)와 가나안복자방송 대표 도루디아 목사, 국제에녹부흥사회 회원이며 베다니마을 공동체 대표 이호 성 목사(영화교회)가 축사를 전하고, 수 석상임회장이며 이사를 맡고 있는 궤에 스터 목사(부여국제침식기도원)의 격려 사를, 무지개방송 대표 강신숙 목사, 부 흥사 임무대 목사, 찬양사역자 강신애 찬 양선교사가 각각 축가를 했으며, 대표회 장 곽영민 목사의 인사와 함께, 복된교회 담임 윤동훈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화기 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민승기 회장

“한민족 단결하여 남북통일 이룩하자”

2016년 뜻 깊은 3.1절을 맞이하여 오렌 지카운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계단체 들과 OC SD 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지역 동포들과 함께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를 가졌다.

3월1일(화) 오후2시 은혜한인교회(한기 홍 목사)에서 민승기 목사(OC 교회협의 의 회장)의 사회로 진행하면서 조형수 목 사(OC 교협 부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민경엽 목사(OC 교협 이사장)이 설교했 다. 민 목사는 이수정 집사의 특송에 이 어 등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민 목 사는 에스더 4장 10절-17절을 본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기동 목사(OC 직전 회장)의 축도를 끝 으로 1부 기도회를 마쳤다.

이어서 제2부는 이호우 목사(O.C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3. 1절 국민의례가 진

행되었다. 살롬여성합창단이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제창하고 3.1절 노래도 함께 불 렸다.

이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은 권석대 회 장(OC, SD 편동)과 민승기 O.C 교협 회장 이 인사말에 이어 살롬합창단의 축하를 들으며 조국의 향취를 마음껏 느끼는 시 간을 가졌다.

한편 제3부에 특별기도 순서에 동참한 동 포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했다. CHTV1888 제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2016 표어 :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황만재 (Senior Pastor)
담임 목사: 황 원 찬 (Rev.)
장 로: 김장길, 류근승, 윤호열, 정진수, 조원영, 장연창, 이종식/강민철, 현상일(안수)
부 목 사: 장위중(학생회, 청년회, 행정)
협동목사: 권오형(전영석 장령음)
전 도 사: 이은자 (주일학교 행정, 심방), 이남임 (전도, 심방, 구역)
미주교회: 김도경 목사(미국 남가주 섬김의 교회)
18303 AGUIRO ST, ROWLAND HTS CA 91748 USA
선 교 사: 진 훈(중국) · 데이비드김(Y국) · 김희진(Y지호스탄)
운재관 · 윤혜미(Y프카니스칸) · 다니엘(가나)
지 휘: 한승희
찬양인도: 맹현국, 이상진, 안혜림, 김전숙, 정영, 김선희, 남지혜, 박종혁
반 주: 전혜영 (실로암성가대, 피아노), 최나람 (주일예배 오르간)
황은애(주일 찬양, 조수진(심방예배), 허예은(감람리)

예배시간 및 모임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8:00	영아 · 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11:00	유 · 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주일 찬양예배	주일오후 2:00	중 ·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30
새벽 기도 회	매일새벽 5:00	중 · 고등부 모임	토요일 오후 4:00
심방 저녁예배	심방 오후 7:00	대 학 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9:00	대 학 부 모임	토요일 오후 6:00
금요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청 년 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새신자양육모임	주일낮 12:30-1:00	청 년 부 모임	토요일 오후 6:00
축 구 선 교 회	주일 오후 4:00	말 씀 교 제 모임	주일낮 12:50-1:50

프로필

연양대학교 신학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학사
미국 아주사범대학교 석사
미국 리플드신학대학원 박사
연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대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석수총회)장
현화당장로교회 담임목사

담임 황 원 찬 목사



- 축 부활 -



(143-915)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43(화양동)

교회 TEL : 02-461-5975 Fax ; 02)464-5502 (부설기관/화양어린이집 02)464-5522)

대표 E-mail/hwayangchurch@hosanna.net 홈페이지/http://hychurch.kr

요한계시록 2장 강해(16)

성도들의 최고의 상급인 첫째부활의 영광

금촛대 교회가 아니면 7년 대환란 날에 다 넘어져

〈지난호 이어서...〉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일곱 집사로 뽑혔습니다. 그가 일곱 집사로 뽑히고 난후 곧바로 유대교의 율법의 신앙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일곱 집사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자기 인생을 불살라서 사도대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유지가 니콜라오를 포함한 일곱 집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예전의 일을 회상하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스테판을 비롯한 여섯 집사입니다. 그러나 니콜라오는 자신이 행한 종전의 일들과 업적을 생각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한공 많이 했던 것, 헌신한 것, 교회 부흥시킨 것 등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상이 아닙니다. 니콜라오는 이 모든 훌륭한 업적들을 자신이 한 것으로 여기는데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으니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낫지 않은가 하여 결국은 그것으로 변절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구제, 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여기므로 니콜라오의 행위는 대단한 것이 됩니다. 니콜라오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쳐진 것입니다.

니콜라오와 같이 행함에 의한 업적, 자신이 수고·헌신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무엇을 주셔야 한다는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니콜라오의 교훈과 신앙을 계승한 것이 니콜라당이고 니콜라 학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철저히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금촛대 교회는 주님이 다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금촛대 교회 사자와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므로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그 무엇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 안 되면 결국 니콜라당이 되고 맙니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창 3:22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으려 하는 것을 막으시고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따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3:22과 계 2:7의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손으로 따먹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손으로 따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 먹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은혜·은총·의로써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따주어 먹는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실체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계 22:1 이하에 하늘나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과 그 강의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광경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의 모습은 하늘의 에덴동산, 천국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의 에덴동산은 계시록 22장의 천국의 모형으로서 실제로 오늘날의 터키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의 에덴동산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따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며 영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최상의 복으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최상의 복은 별것이 아닌 한 순간, 한 점점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역사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도 없지만 끝이 시간을 계산하여 몇 억 만년이 지나도 내게 임해주신 첫째 부활의 영광이 한량없이 새로워져가며 행복이 더해가므로 이 땅에 잠시 왔다 간 것도 가물 가물 해줍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위하여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늘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생의 기쁨을 깨닫고 변화되면서 열매 맺어가는 것이 곧 주님이 생명과를 따주어 먹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의 영광을 받고 나타내신 예수님

8절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 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온 세상의 교회들이 스머나 교회를 어떻게 합합니까? ‘스머나 교회는 옛날 아시아에 있던 교회 중의 하나요, 주를 위해 고난 받고 환란과 궁핍이 있는 교회로서 칭찬 받는 교회요, 책망이 없는 흠 없는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깨달은 것으로 정말 목을 내놓고 증거 할 수 있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짝하고 찬빛이 비취지는 것이 없이 온 세상 교회들이 알고 있는 일반론적인 수준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내 희미한 빛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아주 찬 빛으로 비취져야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처럼 완벽하게 되어, 이 예언의 말씀의 등불이 되어야 하느냐에 쓰실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내 영의 뼈와 살이 되어 지고 우리의 몸이 되어져야 예언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스머나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스머나 교회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머나 교회는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대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기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11절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둘째 사망의 해는 계 20:4-6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 목 베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살면서 통치하고, 둘째 사망이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난 받는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초대 교회 때 이러한 것으로

고난 받았나요? 이 일은 종말에 주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계 13장) 나타나는 그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므로 목 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반론적인 스머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 환란과 궁핍이 있으면 스머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스머나 교회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용대이지고 천 년 환란 날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여 그의 표를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환란 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 베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머나 교회는 어떠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머나 교회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주님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은 내게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주시는 것으로 확인 받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계 20:6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스머나 교회의 핵심입니다.

오직 재림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스머나교회 성도들

9절 내가 너의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아노라.(오호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호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현재 스머나 교회가 환란, 궁핍이 있으나 네가 부요한 자라고 하심은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머나 교회가 환란, 궁핍이 있는 것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칭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롬 2:28-29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이라 함은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독으로 인해 스머나 교회가 환란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모독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기고 있는 스머나 교회를 주님이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방송 www.jtntv.kr에서 장한국 목사님의 방송된 강의가 있습니다.

목사코너(60)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가?”

(요1서 5:1-6)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외관상으로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 중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소위 불탁자들도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1서 3:9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며 즉 헬라어인 ‘조에’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외관상으로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 중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소위 불탁자들도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1서 3:9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며 즉 헬라어인 ‘조에’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자신의 생명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독생자를 역시 사랑하며, 또 함께 난 다른 하나님 자녀들을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이지요(요1서 3:15).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도 확증됩니다(요 15:10-13).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물은 말씀을 뜻하고(엡 5:26, 요 3:5)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은 살리는 영인 진리요, 영생의 말씀이요, 또한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임혀주는 분이십니다. 피로 임하신 분이란 새 언약의 피를 가리킵니다. 새 언약을 세운 예수의 피로 인해 거룩한 자, 온전 한자가 되게 하시며 특히 성령 부어 말씀을 심령에 새겨주시어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도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시게 함이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

축 부 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춘복 목사

남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만식 목사

설만한물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기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사금열 목사

예심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반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매일 밤 10시 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로 임신형 목사

중흥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4

살아있는 신앙, 영성이란 무엇인가?

〈지난호에 이어서...〉

영성운동의 필요성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말씀(요 1:1)과 함께 찾아오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교회들과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만 외치다 보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성도들은 능력을 잃고 힘없는 자들이 되었다. 영성운동은 실존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모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인 ‘영성’을 회복하고(돌아온 탕자, 눅 15:11-27),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함께 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즉 믿을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영안으로 바라보며(히 11:1, 27, 요 5:37-38, 민 12:8) 주님의 실체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말씀의 인격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행 2:25-26, 요 1:1).

성령님과 동행(사 41:10)할 때 여러 가지 은사와 영적인 파워(Power)가 나 가게 된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눅19:10)인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막 16:17-18)가 따르게 되어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영성운동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실 수 있도록 알곡을 만드는 운동이고, 구원(요 3:1-10)에 이르게 하는 운동이다.

또한 말씀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제2의 종교개혁운동(히 9:10)으로, 타락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운동의 근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국을 주시기 위한 작업으로 그 후손 아담의 열두 아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약 430여 년 만에 아담의 열두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형성케 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곧 바로 짓고 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나, 쾌적하고 비옥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송택규 목사
JTNTV 주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한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광야를 통한 영성훈련이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성(하나님의 성품)을 되찾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막(하늘 성소의 그림자)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성막 구조물의 각 단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후 교회의 그림자가 되게 하셨다.

이는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성막의 각 단계의 영적인 의미는 없어졌고 그저 형식주의와 이론으로 포장된 예배의식과 성경공부와 심리화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지 교회성장만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방향으로 치달아 왔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영성운동의 근거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영성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성막 탄생의 배경 ■출애굽과 광야 ■황량한 사막과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서정과 성막

성막 탄생의 배경

하나님께서 일구웁심 바라시는 것은 자녀들의 구원이다. 이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한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는, 부모로서의 애통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들이 점점 더 타락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인류를 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멸망을 예고하셨으나 의인 노아(창 6:8-9)만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 가정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후에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등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또다시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하여 불로 심판하시기로 하고, 롯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유황불 심판으로 죽고 롯과 두 자녀만이 살아남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창 19장). 자유의지를 준 인간들의 심성 속에 마귀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자, 좀처럼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아브라함의 자손 중 아담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후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로 애굽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타민족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종살이가 날이 갈수록 고되고 급기야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민족 말살정책을 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과 심음소리가 하늘에 닿게 되었다. 하나님은 노예생활로 지친 그들의 고 통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땅에서 건져 내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통하여 애굽을 극적으로 탈출하였으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조금만 힘들고 불안하면 즉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등 인간의 타락된 심성 그대로였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타락한 인간들의 후예인 그들은 교만 방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사역까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구원 방법이 맘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곤 했다.

〈다음호에 계속...〉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13)

〈지난호에 이어서...〉

이상과 같이 신약성서에 나타난 영성운동은 세례요한이 예수그리스도의 길을 닦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신약 교회를 세우는 메시아 활동 그리고 조직적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설립과 철저한 회개 및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과 성도들의 충성스런 복음전파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3) 성령운동과 영성운동

신약의 영성에 있어서 그 구심점은 예수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집약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영성의 근거는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체험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 체험과 초대교회의 성령강림 사건에 있다.

‘게이’는 ‘예수’란 책에서 ‘예수의 교훈의 핵심은 예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체함’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신앙체함이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 이러한 예수그리스도의 신앙체함이 신약의 영성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대로



홍향표 목사
사도영성과학원장

성령이하시시는일이다(요16:16).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마가는 ‘예수 속으로’(into him) 들어 왔다고 표현한다. 마가의 기사는 성령이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음을 암시해 주는데 이는 세례 받던 그날 예수에게 성령이 강림하였고 그 성령은예수안에서 계속적으로 있게 된 것을 말한다. 복음서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예수의 교훈 선교 사상 그리고 행동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교제 즉 신앙체함의 외적표현이라 할 수 있는 데 예수님께서 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체험이었다. 예수의 기도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교제의 반영으로서 예수의 내면생활은 바로 기도생활이었다. 예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바로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영적교제에서 비롯된 역동적 활동이었고 계속해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이러한 영적 힘이 계승되었다.

사도들의 설교들이 모두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라는 결론을 ‘다드’(C. H. Dodd)는 사도교회의 설교에 관한연구에서 내렸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강림으로 확정되었다.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이 강력히 증거 되었다. 사실상 초대교회는 구약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영적체함은 초기 기독교에서 계속되었다. 구약의 영적체함은 신적인 영감 신적인힘으로감자기 인간에게 다가와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발휘하다가는 갑자기 떠나버리는 것인데 이러한 영에 대한 이해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신 사도행전시리즈-2

도시선교 전략 – “음지에 빛을 비추라”!

〈지난호에 이어서...〉

이런 재앙은 제3세계나 미개적인 나라에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G7인에서도 존재 하는 것이다. 필자는 세계정상 G1국가인 미국에서도 도시선교의 필요성을 발견하며 선교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조명해본다.

전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 U.S.A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막강한 국방력으로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 문화, 예술, 학문, 과학,의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에도 도시의 빈곤과 실업, 마약과 매춘, 강도, 총기 살인이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키운 것은 사실이나 유럽의 각 나라의 도시는 물러드는 중동의 난민문제로 빈곤, 테러와 인신매매, 알콜, 마약, 매춘으로 유럽전통 문화와 찬란한 기독교정신과 영적 유산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무슬림과 사머니즘이 관을 치고 교회와 사원들이 화당으로 바뀌고 도시 전체가 무슬림화 되어 is 테러리스트들이 백우에 공공장소에서 테러를 벌이고 은닉하는 도시로 변했다. 공산화에서 자유를 찾은 북유럽의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담임
Destiny Christian University of Koera 학장
치유와 회복선교회 대표

국가들도 어렵기는 한가지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체제의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한 아픔과 오래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는 방종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불안한 심리는 우상과 사머니즘을 통해 위로 받기 시작한다.

아시아는 어떻게? 아시아가 하나가 되어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를 견제하지만 실제로 한족해보면 일본과 중국의 의 패권아래 종식되 자들에게 아무하며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자들의 경제력과 무력은 놀랍다. 그러나 그들의 도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어떤가? OECD 국가 중 술과 담배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교통사고사망자가 제일 많고 이혼과 가정파탄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나라. 경제적인 어려움가운데 외채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이상한 나라 짧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와 교회수를 자랑하는 나라. 그러나 교단의 분열과 아픔이 많은 나라다. 과연 어디가 가장 영적인 오지일까!.

인구의 도시집중화 빈곤 실업 마약 알콜 중독 매춘 인신매매 살인강도 저들이 처한 고난의 울부짖음과 처절한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길 소망한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명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21세기 다양한 전문인 사명자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한다.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양한 꿈을 꾸어본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갈망하며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이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Are You A World Changer?



부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 1:2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송초)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병범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원근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목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 특별기행문 ■

요한복음으로 Cebu와 Bogo city에 생명의 빛을 발하다!

시작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 요한복음 강해“생명의 빛을 필리핀에”

『특별기행문』 지난 3월 6일(주일) 오후에 배를 드린 후 오후 4시. 성도들의 격려를 받으며 장한국 목사 내외분과 필리핀 선교단 8명은 밤 8시20분 필리핀을 향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Book of JOHN Exposition> pastor's & leader's seminar! 이번 목적은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장한국 목사가 특별강사로 초빙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집회를 준비케하신 가운데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는 필리핀 지역 목회자들과 교계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주제로 생명의 빛을 발하고자, 『요한복음 강해 I』을 영역(英譯)한 총 592 페이지에 달하는 A Spiritual & Expository Stud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volume I'을 간행하여 출발에 앞서 필리핀 현지에 발송되었다.

이날 우리 일행은 무사히 Cebu 공항에 23시30분경 도착했다. 하지만 필리핀 입국을 앞두고 공항에서 이유 없이

30\$의 벌금을 지불해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Bella Vista 호텔에 도착은 했지만 이미 집회가 열리는 7일 오전 2시가 되었다. 불과 6~7시간 후면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긴장감으로 잠을 설쳐야 했다.

3월 7~8일 이틀간의 Cebu 집회 시작은 아침 9:00. 68명의 목회자들로 강의실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대부분이 경륜이 높은 듯한 인사이다. 열대지역 특유의 열정적인 찬양을 했다. 강의 첫날 오전 강사로 나선 장 목사는 요한복음 1장을 주제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증거 하였다. The life is not made of, but bor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존재임을 선포할 때마다, 흡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이 참석자 모두는 숨죽이고 경청하였다. 또한 'Amen'을 외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일시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68명의 마리아들! 뒷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선교단원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다.

오후 강의는 요한복음 2장을 주제로 셋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와 물로 된 포도주로, 계 19:9의 어린양의 혼인식과 그 자리에 참여케 하는 영광의 복음에 대한 계시로 말씀을 전했다. 또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은 우리 심령성전

을 깨끗케 하시는 주님으로, 6장의 보리빵 다섯 덩어리는 예수님을 말하며 첫 열매인 보리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영적계시를 증거 했다

8일, Cebu에서의 이틀날은 오전에 강의가 끝나는 일정이다. 3장에서 자신이 거듭난(헬라어로 '위로부터 태어나다'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진리와 함께, 10장의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정립해 주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참석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깨달아 "very nice, very deep!"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이에 장한국 목사는 이번 집회는 요한복음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대해 빛으로 드러내는 집회로써, 그들의 영적 어두움과 궁극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다.

「잠간의 쉬는 시간. 수업 분위기에 감격한 내가」목사님이 강의시간에 책을 읽어들 때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은 바로 정정해주셨다." 그것은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살리는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누가 영어를 가장 잘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시는 목사님, 경,



이. 롭. 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께 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변함없이 보지 못하는 나는 뭐냐? 그것도 경이로울 뿐.' 8일 오전 집회를 마치고, Cebu에서 봉고차로 3시간 30분 이동하여 Bogo city에 도착. 별로 좋지 않은 교통사정으로 유쾌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시간이다.

3월 9~10일은 Bogo에서 53명의 목회자가 모여 Cebu에서와 동일한 일정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Bogo는 대도시인 Cebu에서 3~4시간 떨어진 곳으로, 그곳 목회자들은 Cebu의 세련되고 깔끔한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발 매다말고 달려온 듯 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Cebu에서와 같이 매우 진지했다. 펜으로 적고 밑줄 치며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며 몰두했다.

여기서 또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바! 일반적으로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첫 강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중간에 가버리거나 다음 날 강의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집회에는 Cebu나 Bogo에서 서너 명을 제외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참가자

중에 현지 침례신학교 총장이 있었다. 강의 초반부에 그가 목사의 강의를 영적으로 대적하여 감사 목사를 힘들게 하였으나, 점차 태도가 바뀌어 끝까지 은혜롭게 강의에 동참하게 된 일이 있었다. 또 작년도 집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올해도 오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하던 한 목회자가 폐회 대표기도로 요한복음의 생수의 말씀이 '보배(treasure)'라고 3번씩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Bogo에서의 집회를 더 큰 은혜로 마무리했다.

올해 Cebu와 Bogo 참가자 중 작년도 참예기 1~11장 집회에 이어 연속으로 참석한 목회자들은 다른 멤버들보다 말씀을 받는 속도가 월등해서, 이 선교의 전망이 밝다고 장 목사는 기뻐했다. 순차 내가 목사님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경험했던 첫사랑의 시절이 떠올랐다. '나를 개혁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겠지. 할렐루야.' 이번 집회로 말씀을 받은 이들이 생명의 빛을 조명 받아서 영혼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죽음의 장

막'이라 불리던 중공 시절부터 중국선교를 시작하여 2010년 2월 추방되기까지 중국선교에 온 힘을 쏟게 하셨다. 이후 영어권 선교로 방향을 전환케 하셔서, 필리핀 선교는 5년간 15번째 집회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 선교 초기부터 빠짐없이 참석하여 영적 진리로 성숙된 Pastor Jun & Jolido는 우리 목사님은 받은 진리로 자신들이 시무하는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신다.

2회에 걸쳐 나흘 동안 강행군된 요한복음 강의 일정이 끝났다. 현지 선교사와 이번 집회에 대한 피드백을 마친 후에, 우리 일행은 금요일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간다. 주일 한밤중에 도착하여 음습하고 후덥지근했던 필리핀의 하늘이 오늘은 벽옥(Jasper)처럼 푸르다. 하나님의 나라(Heaven)가 비쳐질 듯 투명하게 반짝인다.

하나님께서 장한국 목사를 통해, 그 뒤를 따르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로 이루시는 선교사역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To be continued~ 주사랑교회 선교단 ○○○권사 제공

대한노회 2016 신년 교역자 수련회 가져

주 재림 예언 계시 '계시록 14장에 등장한 14만4천에 관한 특강'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22일~24일 2박3일간 충북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소재 새에루살렘교회(담임 김정미 목사 시무)에서 노회장 장한국 목사가 강사로 주제는 '주 재림 예언 계시'로 정한 가운데 2016년 신년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다.

김정미 목사의 찬양인도로 오프닝을 갖고, 노회서기 박민규 목사의 사회로 수련회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박명자 목사(생명수교회)가 기도문, 사회자의 성경봉독(계 1:3)과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복 있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날 시작된 특강은 22일(월) 저녁부터 24일(수) 오전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폐회예배를 끝으로 대한노회 교육부 주관 2016 신년 교역자 수련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강사로 나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한 14만4천에 대해 본문말씀을 중심으로 구체적이면서 이시대의 사역자로서 깨달아야 할 것 등을 설명하고 강의했다. 장 목사는 계 14장에서 크게 세가지를 지적하고 첫 번째 전반부 14만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들의 사명이 끝난 후의 모습과 이들의 자각에 대해 언급하면서 14만4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난 날에 주의 재림 직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 받을 14만4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계시록 14장의 전체 맥은 종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다.



두 번째 14장 중반에서 '영원한 복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악한 자들의 진노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계시록 14장은 중요하다

고 했다. 수련회 첫날 저녁부터 이튿날 낮 강의 중에서 JTNTV 지저스타임즈(www.jtntv.kr)방송에서 5~6회에 걸쳐 동영상 통해,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 축 부활 단기선교기념 -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툭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11:19-20)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춷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 예/배/안/내

	오전	오후
일	[주일 새벽예배]-AM 5:30 [주일 예배]-AM 9:00 [주일 대예배]-AM 11:00	[주일저녁예배]-PM 2:00 [남전도회 구역예배]-PM 5:00 [청년회 예배]-PM 6:00
월		
화	[새벽예배] - AM 5:30	
수	[새벽예배] - AM 5:30	[수요 예배] - PM 7:30
목	[새벽예배] - AM 5:30	
금	[새벽예배] - AM 5:30	[여전도회 구역예배] - PM 7시 [금요 철야예배] - PM 9시
토		[학생회 예배] - PM 5시



담임목사 장한국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주사랑교회(내손동, 대림프라자(고호5))

☎ 031)424-7612 H.P 010-4436-7060 홈페이지 http://jlcn.kr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39대 총회장에 최현기 목사 취임

16개 시·도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순회하며 경찰복음화에 최선을 약속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대한민국교회 헌정기념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이며 상임총회장 허 식 목사 사로 개회된 제39회 정기총회에서 회무처리에 들어가 권덕순, 이상철, 김동현, 김도찬씨를 신입회원으로 위촉하고,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이날 한경총은 최현기 목사(주사랑교회 당회장)를 신임총회장에 추대하고, 선거관리위원장 허 식 목사는 신임총회장 최현기 목사를 축하하고 당선증을 전했다.

2부 이.취임식감사예배 및 민생치안을 위한 기도회가 총무(사무총장) 홍향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영등포경찰서 총경 신윤균 서장을 대신하여 장운호 교무과장이 환영사를 대독하고, 대전경찰청 실장 박양우 목사가 기도를, 서기 홍성익 목사의 성경봉독(요한1서 3:8)을, 우슬초문화선교사 박용숙 목사의 특송에 이어 증경총회장 엄신형 목사(중흥교회)는“예수님이 오심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이.취임식에서 상임총회장 허 식 목사(증경총회장)는 이임사에서 제39대 총회장 최현기 목사를 축하했다. 또한 치안안정을 위하여 한국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장 최현기 목사는 이임하는 허 식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취임사에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불철주야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 근무와 순찰 등으로 민생치안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들을 격려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경목들과 경찰서 경목들, 또한 전국 16개 시·도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경찰병원 등에서 경찰복음화 운동에 적극 협조해 준 강신명 청장과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15만 경찰과 60만 경찰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성하신 축복을 기원’했다.

또한 한국경목총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선교와 해외선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찰 선교정책을 교회와 경찰, 경찰가족, 일반교우들, 시도, 경찰서 경목 및 낙도오지 지구대, 경찰가족간의 환영사를 대독하고, 대전경찰청 실장 박양우 목사가 기도를, 서기 홍성익 목사의 성경봉독(요한1서 3:8)을, 우슬초문화선교사 박용숙 목사의 특송에 이어 증경총회장 엄신형 목사(중흥교회)는“예수님이 오심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이.취임식에서 상임총회장 허 식 목사(증경총회장)는 이임사에서 제39대 총회장 최현기 목사를 축하했다. 또한 치안안정을 위하여 한국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본회 회계 양미상 목사가 헌금기도를, 민생치안을 담당할 경찰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1) 나라와 자유통일과 대통령을 위하여 부회장 박동호 목사(JTNTV방송 상임이사), 2) 강신명 경찰청장을 위하여 김중순 목사(전 경찰청 경목실장), 3) 한국경목원들과 사업을 위하여 부회장 이창식 목사 등이 기도했다.

이날 국회의원 이우현 의원을 대신하여 김민호 보좌관, 예정백석 증경총회장 장원기 목사, (사)대한민국경찰복음화협의회 총재 이정춘 목사, 김병훈 이사장, 예정백석 증경총회장 손양도 목사 등이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아울러 신임총회장 최현기 목사는 대전경목실장 박양우 목사(JTNTV방송 상임이사), 영등포경찰서 총경 신윤균 서장, 국회의원

이우현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총경 김윤균 영등포경찰서장을 대신하여 장운호 교무과장은 홍성익, 이재훈, 오군진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총회장 최현기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기념촬영과 오찬을 나누었다.

한편 제39대 총회장 최현기 목사 약력은...

대한신학교 졸업(신학학사), 총회신학대학원 졸업(신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졸업(목회 상담학),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교 신학박사취득, 명지대학교 총동문회 5대 부회장, 명지대학교 교수(기독교 윤리), 세계민족복음화 부흥사회의 대표회장, (현)예장 백석 증경총회장, (현)대한민국경찰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현)예장 주사랑교회 담임목사이다. (일부분만 약력이 소개됨)

한국경목총회 임원회 열고 구로경찰서 위문

총회장 최현기 목사 39-1차 첫 임원회 개최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교도소 위문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어

13만 경찰과 42만 경찰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을 다하고 있는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 총회장 최현기 목사)는 3월 9일 오전 11시 제39-1차 임원회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월드메르디앙 임시사무실에서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상임회장 허 식 목사의 기도 후 신임총회장 최현기 목사는 3월 8-9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2부 순서로 최 총회장은 39회기 첫 번째 임원회가 개최되어 총무 홍향표 목사는 39대 총회장과 임원 25명, 증경총회장 5명, 지도고문 5명을 임명하여 39회기가 시작되고, 지난 2월 2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회결과를 등기로 발송했다며 그간의 업무사항을 보고했다.



또한 최 총회장은 취임 후 첫 임원회를 열고, 상반기의 한경총 활동에 대해 일정을 밝혔다. 3월 19일은 목포교도소, 29일 지방경찰서, 4월 7일 청송교도소, 4월 중 지방경찰서, 5월 초에는 지방경찰청, 5월 19일은 이천 소망기독교교도소, 6월 중 캄보디아와 지방경찰서 등을 위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현기 총회장은 첫 행보로 임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2시 구로경찰서 총경 홍기현 서장의 초대로 방문하여 양측의 상견례가 있은 후 홍기현 서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총회장 최현기 목사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구로로 민안과 치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경찰서장과 기관장들을 격려하고 국가안보와 대통령을 위하여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한 후 화기에애한 가운데 덕담을 나누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기독교는 '생명의 부활의 교'이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1) 우리 영혼이 심령한 몸으로 변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요11:43-44)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마27:50-53) 등은 흠으로 된 우리 몸이 그대로 살아난 것이다

(2)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로 있을 구체적인 변화이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다.

(3) 부활은 진리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

각하기에 죽음을 진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죽음은 부활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음을 진리라 하지 않고, 다만 '정만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얻는 것(히9:27)'이라 부르고 있다.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 될 부활만이 진리이다.

(4) 죄가 없다는 증거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 죄가 있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하셨다.

(5) 우주 안에 없었던 새로운 법이요, 최대의 사건이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의 소식이다.

성도의 부활

이 땅에 있던 자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흠없이 심령한 몸으로 변화하여(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 받아 서로 만나게 된다(살전 4:13-18).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한다. 그 후에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 동안 성도들이 왕 노릇하게 되며, '천년왕국' 종말에는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여 지옥으로 가고, 성도가 아닌 신자들(대강 대



총회장 최현기 목사
(한국경목총회 · 주사랑교회)

강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부활하여 함께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한다.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룩하고 심령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그것을 뜻대 삼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빌 3:10).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는 이 소망에서 나온다.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 부활의 능력은 내세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체함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과 신유, 축사, 영생, 자녀 된 권세를 온전히 체험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합입는 진정한 성도이다.

부활

한국경목총회 제39대 총회장 최현기 목사 취임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전국 경목위원들의 사역위에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국경목총회가 기도드립니다.

표어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께서 이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총회장 최현기 목사	증경회장 조목목 목사	증경회장 임신형 목사	증경회장 이상재 목사	증경회장 김진수 목사	상임회장 허 식 목사	부회장 김중순 목사	부회장 이건국 목사	부회장 김정통 목사	부회장 이창식 목사	부회장 유철규 목사	부회장 남기덕 목사	부회장 강변석 목사	부회장 조규석 목사
	부회장 김국환 목사	부회장 임기석 목사	부회장 박동호 목사	부회장 전남호 목사	지도고문 지왕철 목사	지도고문 백승억 목사	지도고문 황원한 목사(대전대병원장)	지도고문 권대원 목사	지도고문 박현규 목사	총무/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부총무 조연기 목사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	협동총무 임혜숙 목사
서기 홍성익 목사	부서기 옥윤진 목사	회계 양미상 목사	부회계 정선 목사	회록서기 우영민 목사	감사 백양우 목사	감사 최혁 목사	언론대표 정남 목사	글로벌케어병원 박건 목사	임원 임용환 목사(구로경찰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1008호 한국경목총회 사무국: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02)2625-0982 팩스02)868-0652 경찰선교에 관심이 있는 경로위원을 초대합니다.(이사, 중앙위원) 문의: 총무 /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010-7585-1955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한국경목총회 http://www.gapck.or.kr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제목: 강력한 그한 사실
성경: 시편 21편 10-11절 찬송가 571장

본 구절은 다윗이 모압과 에돔 백성들에게 행한 형벌을 예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음모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이방 군주들의 반란 음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므로 저들의 계교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그를 공격 할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 강력한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제목: 지금 내가 누리는
성경: 시편 21편 12-13절 찬송가 257장

마지막으로 본시는 여호와와 능력과 권능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행한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시는 다윗 왕권의 영화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사람은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임박성 앞에서
성경: 시편 20편 3-4절 찬송가 492장

소제와 번제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드린 것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마음의 소원이란 다름 아닌 임박한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원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도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임박성 앞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가라사하면 가고 서라하시면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제목: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성경: 시편 20편 5절 찬송가 599장

승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은 곧 승리를 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 대적 마귀에 대한 구원도 승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매일 매일이 싸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중요하고 지지 않기 위해 영적 오기를 가지고 싸워야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고 박수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제목: 이왕 시작하였다면
성경: 시편 20편 6절 찬송가 469장

앞의 구원하시는 이란 말의 문법상 표현은 완료 시제입니다. 비록 전투는 벌어지지 아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써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음을 바라보았으며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성취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왕 시작한 싸움이라면 오기를 가지고 끝장 보는 믿음으로 싸워 당당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제목: 의지 할 때에
성경: 시편 20편 7절 찬송가 434장

병거와 말은 아람 연합군의 병력을 대표합니다. 대적들은 병력을 의지하나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뿐입니다. 눈을 들어 볼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듯하고 외로워하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갈 때에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 하실 것입니다.

제목: 전쟁의 역전
성경: 시편 20편 8절 찬송가 93장

본 구절은 전쟁초기의 상황이 대적들에게 훨씬 유리하나 전세가 역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다는 말은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말이며, 바로 선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이길 싸움이라면 시작을 하고 이미 시작한 싸움이라면 이길 확신을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만 신뢰 할 때 어떠한 싸움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목: 실제의 왕
성경: 시편 20편 9절 찬송가 287장

본절은 본시의 주제입니다. 앞에서 이 주제를 다룬 다윗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왕권을 이 땅에서 직접 행사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자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헌신과 기도가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을 높이는 영적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목: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하실 때에
성경: 시편 21편 1절 찬송가 346장

본절에서 7절까지는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하여 보여 주신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나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도울 준비가 되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제목: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성경: 시편 21편 2절 찬송가 392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단순히 승리한 사실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보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셨다는 이 은혜로운 사실에 대해 더욱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주위에는 더 많습니다. 눈앞에 다친 그 어떤 것을 놓고 기뻐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중보 하시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삽시다.

제목: 아름다운 복을 위하여
성경: 시편 21편 3절 찬송가 284장

이는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얻은 아름다운 복이란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비하여 두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 담길 그릇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먼저 그릇을 넓히고 준비하며 삽시다.

제목: 생명을 뛰어 넘어
성경: 시편 21편 4절 찬송가 366장

여기서 생명이란 일차적으로 다윗의 개인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작은 일부분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얻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이루 형용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섬세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밀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외로움도 사람의 손길로 안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넓혀진 지경
성경: 시편 21편 5-6절 찬송가 201장

영광은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다윗의 통치가 실제로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6절에 영원토록이란 말은 다윗 왕조의 견고성을 지시하는 말이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금 눈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뿐만 아닌 나의 지경까지도 넓혀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됩시다.

제목: 다윗처럼 성경: 시편 21편 7절

찬양: 찬송가 152장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라는 말은 이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진술입니다. 신정 국가에서 왕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여호와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표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니 우리 현실에서 누군가가 복 받았더라면 그렇게 살아 우리도 그 복 받으며 살고 누군가가 저주 받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 저주 받지 않는 삶 되길 바랍니다.

제목: 하나님이 하시면
성경: 시편 21편 8-9절 찬송가 402장

저희로 풀무 불 갈게 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암몬 자손들에게 행한 처절한 형벌을 연상케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풀무 불이란 역사적인 사건 이외에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가혹한 형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구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다윗이 이방 민족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불

“참으로 두려워할 분”

주후 390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잠시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때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고 독립을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성난 폭동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성이 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군인들에게 보복명령을 내렸고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데살로니가의 무고한 시민 7,000명을 학살하고서야 폭동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되어 황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성전에 왔습니다.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39-397)가 성전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셨는데 무슨 염치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지었잖소?” 암브로

시우스는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히 황제가 다윗 왕을 흉내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황제께서도 다윗 왕처럼 회개를 하셔야지요. 다윗 왕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달게 여기고 자기의 잘못을 위무른 8개월 후에 황제의 옷을 벗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성탄절에 비로소 교회의 공식적인 사면을 얻은 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황제에게도 굴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을 가로막은 암브로시우스의 용기는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것이라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를 향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사회를 보고도 나무라지 못할 만큼 권위를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에 있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편집부 제공



부활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및 임원 명단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발행인)



박영민 목사
(예복부흥사협 대표회장)



박한규 목사



황원찬 목사
(예장대신총회장)



박형취 목사
(성현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강요섭 목사
(세기청대표)



전예희 목사
(성령교회)



박에스터 목사
(국제금식기도원 원장)



이법성 목사
(한기보 직전 대표회장)



허식 목사
(경목총회 총회장)



박양우 목사
(중부지사장)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박동훈 목사
(대신총회 부총회장)



홍향표 목사
(경목총회 사무총장)



박동호 목사
(별빛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교회)



박용숙 목사
(주성왕각청예인교회)



임해숙 목사
(수원행복마을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아름다운교회)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박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이상중 목사
(새용진교회)



이기웅 목사
(영광제일교회)



노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장)



김창룡 목사
(하나님미디어인사교회)



김상익 목사
(신동교회)



김창기 목사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배문자 목사
(그리스신교회)



김부경 목사
(갈보리교회)



회계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신교회)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성교회)



한사라 목사



김창숙 교수
(구미우리회심)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장)



배정희 목사
(믿음교회)



지저스타임즈 & CJTNTV방송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6574

☎ 사무실 032)574-6574

팩 스 : 032)578-8712

대표이사 : 010-5468-

매주 300여 어르신을 섬기며 대접하는 조강수 목사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는 사례비 모아 어르신들의 교통비 및 선물마련

매주 주일 낮과 목요일 금요일 끊임없이 250~300명의 노인들을 초청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섬기고 있는 인천 가좌동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를 만나본다.

그는 인천기독교 목회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그 외 기독교 단체에서 회장과 임원을 맡아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매주 전국 곳곳에서 초청을 받아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소문난 목사이다. 또한 매주 CBS TV를 통해 특강을 하고 있으며, JTNTV방송과 지저스타임즈 이사장과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큰 사역을 하고 있다. 조 목사는 쉬는 시간이 없다. 오로지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는 후덕한 목사이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있는 듯 존경스럽기까지 한다. 지난 13일 오전11시 25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했다. 이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준비한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다. 나름대로 연습해 온 노인 중에는 95세인 최고령의 할아버지, 평균 80세가 넘는 노인들이 찬송가를 불렀다.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다. 그 결과 1등이 두

분, 2등 한분 3등 한분 순으로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3만 원을...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교통비 및 푸짐한 선물을 안겨드렸다.

영광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이 참여한 조 목사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래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받는 사례비를 모아 쌀과 국수 또는 선물을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매주 주일과 목-금요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와 과일 국수와 떡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대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 금요일에도 250-3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맛있게 물어 나온 열치 다시마 국물에 국수를 말아 대접을 하는데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오는 4월 8일(금)오전 11시 경로잔치를 하며, 4월 17일(주일)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사도신경 경연대회를 갖는다. 또한 지난달 조강수 목사는 개척교회를 하는 200여명의 어려운 목회자를 초청, 맛있게 마련한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비와 쌀을 나누어 주었다.

이날 조 목사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래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받는 사례비를 모아 쌀과 국수 또는 선물을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매주 주일과 목-금요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와 과일 국수와 떡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대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강수 목사는 과거에 어렵고 배

고픈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배고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부자 목사가 되게 해 달라며 눈물로 기도드렸을 때 오늘의 영광교회로 성장을 했으며,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눔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짐한다.

영광교회는 엄청난 대교회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있는 교회이다. 담임 조강수 목사의 비전과 성도들의 바램이다. 영광교회의 조강수 목사와 성도들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놀라운 교회이다. 아울러 주일날 성도들과 장로들, 성가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곧 일어날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인천시 기독교 목회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3월 25일(금) 오전 11시 인천시 주관 (구) 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고난주간 특별예배에 설교를 맡았으며, 예배 후에는 십자가 대행진을 갖는다. 이날 고

난주간 특별예배에 영광교회 협시바 성가대가 찬양을 맡는다. 정말 열정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답다.

주일아침이면 장로를 비롯해 권사, 집사 등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계단에 줄을 서서 주일성수를 위해 오는 많은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예배가 끝나면 가지 말라며 점심을 대접한다. 매주

일 그 큰 식당에 웅기종기 둘러앉아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 또한 식사가 끝난 어르신들 250여명을 분당으로 모신 후 인사 말씀을 전하고 교통비 3000원을 담은 봉투를 나누어 드리고 있다. 매주일 말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눔으로 축복받는 성도들과 영광교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종진 목사 3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less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세시 강단부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1(화) 오전 용인 웨스턴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박사) ☎(031)270-6000
3(목) 오전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교역자D홀) ☎(010)-8222-0591
3(목)~5(토) 김포 참종교교회(최윤남 목사) ☎(010)-3284-9238
7(일) 오전 서울 도림천교회(오영자 목사) ☎(010)-3284-9238
7(일) 오후 주회: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성호 목사)
7(일) 오후 서울 지류교회(김진순 목사) ☎(010)-9802-2188
7(일) 오후 광주 삼동교회(고정일 목사) ☎(062)432-6392
11(금) 오후 요한계시록 도표 공개 세미나(준비위원장 이두영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010)-5763-3498
주관: 요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현영환 목사)
14(일)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 연세인 수상식(연세총동문회관)
14(일)~16(수) 남양주 아가페민족기독교전(원장 최정애 목사) ☎(031)1513-3727
17(목) 오후 익산 말씀찬양교회(윤도영 목사) ☎(010)-2005-2292
19(토) 오전 서울 광문교회(황희일 목사) ☎(02)557-4292
21(일) 오후 백석대학교(총장 박종서 목사) 목회연구원(원장 이선 목사) ☎(02)520-0801
21(일)~23(수) 군산 예수광기도전(원장 김광선 목사) ☎(010)-8924-4927
25(일) 오후 안양 갈매신앙기독교전(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28(일) 오후 서울 행복이넘치는교회(정소피아 목사) ☎(010)-8701-5764
28(일)~31(수) 수원 비전교회(총종교 목사) ☎(010)-7223-9650

인천시 고난주간 특별 예배 십자가의 길



대표회장
조 강 수 목사



실무회장
박 무 평 목사

주 님!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소원도 바람도 갖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가족들의 미래도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이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 따르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주 님!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갖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도 세상적인 쾌락도 십자가의 길
오직 그 길만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 따르기를 기도 할 뿐입니다.

주 님!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만족도 행복도 갖지 못합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세상의 명예 권세도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나의 만족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 따르기를 사모할 뿐입니다.



- 일 시 : 2016년 3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광역시 주안 (구) 시민회관 광장
- 주 최 : 인천시 기독교 목회자 총연합회
(대표회장: 조강수목사, 실무회장: 박무평목사)
- 문 의 : 사무총장 서초원목사(010-5494-1648)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2016년 3월~4월 집회일정



강사 조강수 목사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영광교회 축복대성회에 초청합니다

(3월집회)

- 3월7일(월)~3월9일(수) 사랑의 교회
주소: 인천시부평구산곡동 51-3 3층 010-6787-1477
- 3월10일(목) 섬김과 나눔
장소: 백합중앙장로교회 010-9178-0737
- 3월14일(월)~3월16일 남인천교회
- 3월17일(목) 동산교회
- 3월 20일(주일저녁)~3월23일(수) 목포꿈의교회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 061-277-0498
- 3월 25일 인천시고난주간 특별예배
장소: 인천광역시 주안 (구) 시민회관 광장 오전11시
- 3월 28일(월)~3월31일(목) 인천찬양교회

(4월집회)

- 4월 4일(월)~4월7일(목) 청주금식수양관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1길 43
전화:043-269-5211
- 4월 8일(금) 경로잔치
장소: 영광교회 032-575-1654
- 4월 11일(월)~4월14일(목) 충주금식기도원
주소: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573번지
전화: 043-853-3990
- 4월18일(월)~4월 20일(수)
인천민음교회
- 4월 25일(월)~4월 27일(수)
청주생명샘교회

축
부 활

